

True Peace

天國 9年
天曆 6

2021년 양력 7월



세계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DMZ

황보국 신한국가정연합 제2지구 회장



신한국가정연합 제2지구 회장 황보국입니다. 저희 지구는 강원도와 경기도를 품고 있는 지구로써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고 있는 DMZ가 동서로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DMZ는 신통일한국시대의 요충지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곳은 더 이상 분쟁과 갈등의 지역이 아닌 평화와 화해의 지역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역설의 땅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DMZ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 서부에서 동부까지 248km, 155마일)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각각 2km씩 펼쳐져 있는 벨트이며,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근거해 한국전쟁 종식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입니다. 그러므로 DMZ는 정전협정이라는 국제법에 의거한 비무장지대로서 본질적으로 중립지대 및 변경지대적 성격을 내포하며 군사적 완충지대(Buffer Zone)인 것입니다. 그러나 DMZ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비무장화된 지역이 아닌 『중무장화된 지역』(Heavily Militarized Zone: HMZ)으로 현재 지구상에서 군사적 긴장이 가장 첨예한 안보 첨단 지역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이러한 안보 첨단 지역에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구상입니다. 남북 간 경직된 관계를 개선하고 획기적 남북관계 발전 및 한반도 평화 정착이라는 대북정책 목표를 달성, 이러한 동력을 기반으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동북아 및 세계평화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으로 남북 간 평화의 물꼬를 트고 UN 제5사무국 유치로 DMZ 내에 평화를 공고히 하며 통일 이후 남북한의 평화와 화합을 위한 세계종교기구, 세계가족기구 등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이 우리 민족의 평화지대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세계인의 평화지대로서의 상징적 장소로 발전하기 위해 이제는 DMZ를 단순히 남과 북의 군사분계선을 중심으로 한 비무장지대로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가, 단순히 과거에 이 땅에서 저질렀던 한국 전쟁으로 인해 남겨진 상처에 대해 이야기하는 수준을 넘어, 미래지향적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 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우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대통합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루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이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입니다. 6.25전쟁 후 보잘 것 없었던 대한민국의 발전상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나라들에게 미래의 희망과 도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이들 나라의 국민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사명일 것입니다. 또한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여야 할 대한민국이 UN 16개국 한국전쟁 참전국가와 60여 개국에서 한국을 지원했던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은 늦게라도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북한의 전향적인 자세와 국제사회의 한반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 등 여러 가지 현실적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2지구는 UN 및 관련국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 및 UN제5사무국 유치 DMZ가 세계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는 비전』을 실현시켜 나갈 것입니다. 비무장지대 내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국가의제로서 세계평화생태공원조성과 세계평화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세계인들이 찾아와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고 평화세계 실현을 위한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더불어 이북에 위치하고 있는 평강군과 세포군을 중심으로 농업과 축산업을 중심한 스마트팜 생태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제는 관념적인 차원을 넘어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남북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 방북 30주년을 맞이한 금년부터 남북통일을 향한 섭리적 과제들도 술술 풀려 나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CONTENTS



04

권두언

- 02 세계평화의 랜드마크가 될 DMZ
황보국 신한국가정연합 제2지구 회장

PEACE STARTS WITH ME

평화와 축복 대회

참여머님 말씀

- 17 하늘의 축복받은 장자국으로서
책임 다하는 미국이 되라

축복가정 간증

- 19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ACLC 창립 21주년 기념 컨퍼런스

- 22 축복을 통한 전체구원의 결의를 모은
ACLC 창립 21주년 기념식

제59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7주년 기념 특별집회

- 24 역사와 전통,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
한데 어우러진 창립기념의 날

참부모님 말씀

- 04 통일교회 창립 의의와 배경
평화경 제2편 2장
- 08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부모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교육하라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특별집회 말씀
- 12 참부모님이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자
하늘부모님성회 1주년 기념 말씀
- 14 참여머님과 함께하는
하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라
신일본 탐견 어셈블리 말씀



09

효정나눔

- 25 진정한 희생의 삶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

참여머님 말씀

- 26 전 세계 인류가 송영 드리는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대하며

포토라인

- 27 PHOTO MEMORIES

천일국 지도자 효정나눔

- 36 참부모님의 고명성 선포
프랑코 파몰라로 캐나다 회장
- 40 칠십 별의 성의
데미안 던클리 대륙회장





통일교회 창립 의의와 배경

한국종교협의회 7개 종단 지도자 방문
1970년 7월 15일 | 한국 서울 용산구 통일교회 협회본부

신의 뜻에 의해 창립된 통일교회

이제 본인이 오신 손님들 앞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해서 본 협회를 창설하게 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중심삼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협회를 창설하게 된 동기는 인의, 즉 사람에 의한 뜻보다도 신의, 즉 신에 의한 뜻이 있어서 출발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사회나 역사는 인의만으로

구성되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신의를 중심삼고 그 어떠한 크나큰 뜻을 중심삼고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뜻만으로 협회가 창설되어서는 역사의 흐름이나 앞으로 새로운 세계 앞에 공헌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신의에 입각해 새로운 종교를 창설했던 것입니다. 인의와 신의가 합할 수 있는 하나의 조직체가 종

교라고 생각했고, 종교란 반드시 신의를 중심삼고 인류 전체가 바라는 인의적인 모든 것을 결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란 무엇입니까? 신의 뜻이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회를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 초민족적이고 초종파적이고 초국가적인 성격을 띤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중심삼지 않고는 신이 바라는 뜻을 완결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미루어 보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의도 역시 어떤 개인적인 뜻이나 어떤 단체적인 뜻을 중심삼은 것이 아니라 신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세계적인 내용을 갖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안팎으로 통합하는 데에 종교의 사명이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신의와 인의를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신이 인간과 하나될 수 있는 사랑은 어떠한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민족, 특정한 국가를 중심한 것이 아니라, 초국가적인 입장에서 인류와 세계를 사랑하는 심정적인 유대를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의와 인의의 일치점을 가려 나가야 할 종교는 인의를 중심삼을 것이 아니라 신의를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뜻을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에 어떻게 결속시키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은 종교라는 형태를 갖추어 결속시켜야 하는데, 그 중심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특정한 국가뿐만 아니라 세계를 넘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참다운 종교의 기반을 세계적으로 형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역사는 성현들을 중심삼고 움직여 나왔습니다. 그들은 인의적인 입장뿐만 아니라 천의를 개재시킨 입장에서 주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바는 어떤 특정한 민족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한계선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성현들의 도리입니다. 그 도리를 중심삼고 천의와 인의

가 일치될 수 있는 내용을 연결시켜 나온 것이 종교입니다. 그러기에 성현은 천의를 기반으로 해서 인류를 결속시키는 표준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어디까지나 세계적인 한계선을 넘을 수 있는 도리를 가르쳐 주는 도리라야 성현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한 성현의 도리를 중심삼고 오늘날 인간이 도의적인 분야에서 인류도덕을 세워 나온 것입니다.

신이 바라는 사랑의 세계인 가정

이런 점에서 볼 때 신과 인간이 하나 되려면 그 중심 자리는 어떤 자리가 돼야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이 바라는 사랑과 인간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랑이 결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그 중심이 무엇이나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 신이 있다면 신과 제일 가까운 자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신의 사랑에



말씀을 경청하는 한국종교협의회 7대 총단 지도자들(1970.7.15 통일교회 협회본부)



1954년 5월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 창립, 이창환 유효원 유효민 김상철 박정화 강현실씨 등 참석

접촉되는 터전은 개인을 중심한 사랑의 터전이 아니기에, 어디까지나 세계와 연결될 수 있는 사랑의 터전이 되지 않고서는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결합할 수 없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결속할 수 있는 제일 가까운 자리가 어디입니까? 신을 중심삼고 인의가 따라가는 자리, 다시 말하면 신의 사랑을 중심삼고 인간의 사랑이 순응하는 자리입니다. 그러한 신의 사랑을 중심삼은 가장 가까울 수 있는 자리를 추구해 볼 때 그 자리는 신의 참다운 아들이 되는 자리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의 참다운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중심삼고 신의 참다운 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아들딸을 중심삼고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가정,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종족,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민족,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국가, 신이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세계를 추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날 통일교회가 신과 인간 사이에 세계적인 기준의 사랑의 인연을 어떻게 결속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중심삼고 발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의 사랑은 반드시 역사과정을 거쳐 가지고서야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은 반드시 성현들이 주도해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현들은 천륜을 중심삼은 신의 가르침을 가지고 지금까지 인류를 계도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역사상에 왔다 간 성현들 가운데 보다 위대한 성현이 누구일 것이냐? 물론 그 경서의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신과 인간이 제일 가까울 수 있는 분야를 가르쳐 주는 종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그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역사과정에서 지금까지 남아져 내려온 종교를 중심삼고 볼 때, 다른 종교보다도 기독교가 고차원적인 입장에서 소개되지 않았나 하고 보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중심삼은 통



북학동 세대문집, 서울 성동구 북학동 391-6호

일교회를 발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삼고 보더라도 그는 신을 찾을 때 막연한 신보다는 구체적인 동시에 생활적으로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신을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해 나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정적인 분야에서 아버지 이상의 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부자의 자리까지 이끌어 결속시킬 수 있는 심정적인 기반을 닦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이 바라는 사랑으로 결속된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는 부자관계 이상의 자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나는 꼭 와야 될 독생자다. 만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기독교가 어떤 종교보다도 신의 심정을 중심삼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추어 신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서 설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신랑이요 너희는 신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종교보다도 신과의 인연을 결속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가까울 수 있는 기점을 설파한 것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믿고 따르던 신도들에게 서로 형제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만민은 한 형제라는 새로운 종교이념인 것입니다.

신이 바라는 사랑의 세계는 반드시 이런 기준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이 사랑할 수 있는 개인, 그 개인들로 구성된 가정, 그 가정들로 구성된 종족, 그 종족들로 구성된 민족, 그 민족들로 구성된 국가, 그리고 그 국가를 통해서 구성되어야 할 최후의 목적지인 세계의 범위까지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적인 기반을 토대로 하지 않고는 결속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과정에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평화경 제2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부모님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교육하라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한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
천일국 9년 천력 4월 12일 (양력 2021.5.23) | 하늘부모님성회 부산교회

천일국의 환경권을 개척해야 했던 참어머니의 심정

다시 만나서 반가워요.

창조주 하나님은 천지만물과 인간조상이 될 수 있는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는 인간에게 성장기간을 통한 책임을 주셨어요. 그 책임을 완성하는 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함께 창조본연의 섭리의 봄을 맞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

늘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섭리의 봄은 찾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창조원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구원섭리 역사를 출발하십니다. 인류역사 6천년의 기간은 겨울절기예요. 어둡고 캄캄하고 쓸쓸스러운 추운 겨울이에요. 하늘은 이 어둠의 세계를 다시 밝혀줄 수 있는 승리한 인간조상이 될 수 있는 구세주를 찾아 나오셨습니다.

그동안에 인구가 많이 늘었고, 많은

나라들이 생겼습니다. 하늘은 이스라엘이라는 선민을 택해서 구원섭리 역사에 종지부를 찍으려 어렵고 힘들게 4천년이란 시간이 걸려 '내 아들이다' 할 수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고, 돌아가시면서 '다시 오마.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마'라고 한 그리스도를 기다

리며 출발한 것이 기독교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창조주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왜 '다시 오마' 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몰랐어요. 인간 중심한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오다 보니 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교로 시작해서 개신교의 많은 교파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현실을 놓고 재림메시아가 오신다면 어디로 가지겠어요? 하나되지 못한 기독교, 많은 분파가 되어 있는 곳에는 가실 수 없습니다.

지금도 기독교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시 오마' 하셨고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한다고 했으니, 오늘날의 인류, 또 기독교의 성도들이 찾아야 할 것은 독생녀입니다. 독생녀가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고 서로 '내가 옳다, 네가 틀렸다' 하고,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면서 파가 많이 생겼어요. 다시 말해서 이 갈라진 기

독교에는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수고하시어 한민족을 택하고 독생녀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면 '다시 오마'라고 한 재림메시아의 책임을 해야 할 분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며 '내가 할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하니 말을 못한다'고 하신 그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양 잔치를 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됩니다. 많은 성도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섭리를 아는 백성을 많이 찾아 세운 자리에서 독생녀를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초창기의 아버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늘섭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내 부모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자랐고 그분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여 내가 나섰습니다.

1960년 그때에 세계 인구는 3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인구는 배가 넘었습니다. 참부모의 탄생을 놓고는 환경권이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일국을 선포하기까지 참부모 섭리 60년은 겨울 절기입니다. 춥고 시리고, 캄캄하고, 희망을 향해서 끝없이 노력하고 환경을 개척해야 하는 겨울절기였습니다. 봄을 맞기 위해서는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의 책임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수없이 많은 참아야 할 노정을 걸어 나오면서 한때를 기다렸습니다.

천일국의 선포는 누가 했습니까? 천일국을 선포했으니 하늘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60년 동안 노력했어요. 그 천일국의 환경권을 7년 내에 하늘 앞에 돌려드리겠다고 맹세하고 나설 때의 그 심정을 여러분이 알아요?



수선화의 정신이 꽃피고 있는 신경상국 부산교회 성전에서 주관해주신 특별집회



- ① 꽃바구니를 봉정해 올린 박영배 신한국 공동대륙회장 가정
- ② 두 번째로 꽃바구니를 봉정해 올린 신경상국 2세, 3세 권 성화학생과 성화어린이
- ③ 신한국 특별대륙 전체를 대표해 예물을 봉정한 주진태, 황보국, 유경득, 이상재 회장(좌로부터)
- ④ 이날의 사회를 맡은 윤영호 세계본부장
- ⑤ 특별보고에 나선 신한국 공동대륙회장들과 효정나눔을 한 이용흠 한일해저터널연구회 공동회장
- ⑥ 효정문화공연을 하고 있는 청년학생들
- ⑦ 평화의 작은 천사 리틀엔젤스
- ⑧ 신경상국 전체 목회자 60명의 결의표명 시간

타락했다 하는 흔적을 지우는 것 또한 축복받은 여러분의 책임

오늘 부산 교구장의 감동적인 기도, 고마웠어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기에 내 부모의 꿈을 기필코 이루어 드려야 하는 효녀이며, 인류의 독생녀요, 참여 어머니이기 때문에 참고 참고 기다리며 결국 세상이 알아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의인들과 종교계에서 나를 독생녀 참여 어머니로 모시며 아들이 되고 딸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많은 성직자가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봄 절기를 맞아 미래에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초창기에 같이 어려운 환경에서 걸어 나왔던 축복 가정들은 참부모를 통해 자녀로 태어났지만 그들이 감당해야 할 책임이 무엇인

지 몰랐습니다. 하늘 앞에 절대신앙·절대 사랑·절대복종해야 하는데, 하늘 앞에는 중심이 독생녀 참여 어머니라는 것을 몰랐어요.

성경에도 ‘메시아를 거역하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을 수 없되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함이 없느니라’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하늘부모님을 위해서 타락한 인류 가운데 타락했다 하는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한 길로 그렇게 달려왔는데, 각자가 책임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놓고 책임 못한 자리에서 이려고저려고 하면, 미래가 없어요. 그들은 알곡도 못되고 쭉정이도 못되는, 흔적마저도 없어지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들이 불쌍하지 않아요? 불쌍해? 「예」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요. 하늘섭리의 발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전개

되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더더구나 6천년간 한 번도 꿈꾸지 못했던 창조주 하나님, 하늘부모님을 지상에서 참부모가 모실 수 있는 성전을 봉헌한다! 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오늘인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많은 인류, 특히 종교계 사람들이 꿈꾸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되지 못하는 환경에서는 하늘부모님이 오실 수 없어요. 참부모와 하나된 자리, 그 자리에만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고 가고 있는 그들에게 바른말을 해주어야지요? 그래서 타락했다 하는 흔적을 조금이라도 지울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축복받은 여러분의 사명이며 책임이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매일 매일 하늘부모님 앞에 본연의 동산에서 꿈꾸셨던 그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드리



며, 그동안 무지한 인간들이 이 창조물, 이 지구를 황폐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본래 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부모라는 것을 교육해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종교 대립이 계속되고, 아브라함의 형제들이 싸우고 있어요. 또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하늘섭리를 모르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쓸데없는 데에 수억 조의 돈을 낭비하면서 정작 백성들은 굶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을 누가 정리해 줘야 합니까? 누가 교육을 해야 합니까?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이 지구가 이렇게 황폐해져서 미래가 없다고 생각

했는지 강대국들이 우주를 개발한다고 해요. 우주를 개발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가지고 날로 황폐해져 가고 있는 사막을 아마존 같은 수림으로 바꾼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 부족, 산소 부족이니, 이 지구에는 더 이상 인구가 늘어나면 안된다고 하면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데 그 천문학적인 돈을 이 지구를 재생시키고 환경을 풍요롭게 하는데 쓴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는 무엇이나? 우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부모라는 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역사에 부모 앞에 효도하는 효자, 충신만이 영원히 그 이름이 남게 되는데 어리석은 행동과 판단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교육해야 합니다. 하늘부모님성회 안의 각 기관, 특히 UPF

와 가정연합이 이제는 담대하게 얘기해야 돼요. 교육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연합은 5개 지구로 나누어서 내가 힘을 실어줬어요. 이 UPF도 5개 지구장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이현영은 본부에서, 수도권에서 청와대, 정계와 국회를 점령해라!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한일터널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만났는데 한일터널재단의 중심축은 5지구가 맡아서 일본의 5지구와 함께 판결을 봐야 돼요.

박영배! 「예」 일본의 5지구장인 박종필과 하나가 돼서 일본 최고지도자와 한국의 최고지도자에게 교육해야 돼. 그 길만이 이 나라가 신통일한국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임을 알려야 돼. 알겠어? 「예」

그러면 오늘은 좋은날이다! ㄹ



참부모님이 크게 자랑할 수 있는 그 날을 향해 자신 있게 나아가자

하늘부모님성회 1주년 기념 천지인참부모님 특별집회
천일국 9년 천력 4월 16일 (양력 2021.5.27) | 효정연

이 순간을 여러분은 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되짚으며 앞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하늘은 이 한민족을 택해 나오시면서, 특히 참부모를 탄생시켜야 하는데 왕정이 계속되는 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정이 끝나고 이 나라가 민주주의로 개문되는 그 시기에 있어서 기독교가 큰 공을 세웠어요. 그리고 오시는 참부모도 기독교 기반에

서 탄생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종교가 하나되는 데 있어서 무슬림이 가장 걸림돌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독생녀다'라고 말할 때에 기독교보다 더 먼저 이슬람이 전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네들은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독생녀는 받아들일 것입니다. 독생녀, 실체성신, 우주의 어머니! 어머니가 탄생되지 않고는

새 생명이 탄생될 수 없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5지구에 내려가서 자신이 기반이 있고 잘났다는 정부 사람들 앞에 너희가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에 공헌한 것은 기독교입니다. 오늘 이 순간도 정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①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문연아 님과 문훈숙 님
- ②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신한국 공동대륙회장들
- ③ 예물을 봉정하고 있는 (우)정원주 총재비서실장과 윤영호 세계본부장
- ④ 예물을 봉정하고 있는 (우)김종관 효정글로벌특별일제단과 제러드 윌리스 HJ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
- ⑤ 축하 케이크 커팅을 하고계신 참여머님
- ⑥ 최근 섭리 보고를 하고 있는 윤영호 세계본부장, 말씀을 훈독하는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보고기도를 드리는 이기성 천심원장
- ⑦ 축하의 노래를 부른 정지우 양과 이리아 마유메 양
- ⑧ 승리의 역만세

그런데 이 기독교가 언제나 자기들만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배경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교인들 중에 37퍼센트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고 해요. 특히 기독교 중에 개신교에는 많은 종파와 분파가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등 많아요. 그들이 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섭리의 진실을 바로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신통일한국, 어렵지 않아

요.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요. 진실 앞에, 진실을 가로막을 아무런 방해물이 없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들은 한참 구약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천양지차 차이가 있는데 뭐가 두려워요? 자신 있게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는 국가복귀를 2023년에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아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복귀하는 데 있어

서 시간을 두었지만, 우리는 1년 안에 실적을 보았잖아요? 하늘이 얼마나 참고 기다려 나오셨어요. 6천년에 60년 더 기다리게 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상생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지상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할 축복가정, 천보가정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지요? 그래서 나는 크게 자랑할 수 있는 날을 고대합니다!



참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하게 외쳐라

신일본 탑건 어셈블리
천일국 9년 천력 4월 18일(양력 2021.5.29) | 천정궁, 도쿄 쇼토본부



연설을 하고 있는 다케우치 히로아키 신일본 부회장

연설을 하고 있는 방상일 신일본 회장

시너지 발표에 임하고 있는 청년학생대표

고맙다. 너희들이야말로 천일국의 변하지 않는 푸른 소나무요, 미래의 희망이다. 독생녀 참어머니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효정량 너희들뿐이다.

너희들이 준비한 보고를 깊은 감동으로 경청하였다. 인류 역사는 인간시조의 타락으로 인해 전쟁과 갈등, 고통의 역사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데, 하늘섭리의 완성을 놓고는 인간 가운데 승리한 참부모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지 않고 하늘부모님의 꿈, 인류가 소원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대유행이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인류는 희망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종교분쟁이 일어나고, 환경이 극도로 심각한 상태로 인해서 미래의 중심인물로 성장해야 할 많은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있으며,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심각한 이 시점에 오직 참부모로 말미암

아 탄생한 2세, 3세권 너희만이 희망이다.

일본을 중시하고 너희들이 그동안 수고하여 10배가를 하였는데 그것 가지고는 국가복구에 도달하지 못하니, 그보다 더 100배가 노력해야겠다. 너희만이 일본의 희망임을 알리라. 1세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많이 만들어 냈는데 그것을 너희들이 교육해서 깨우쳐 줘야 한다. 한일 문제를 놓고도 1세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욕심이다. 인류 한 가족의 평화 세계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소리 높여 그들을 교육하고, 빠르게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더욱더 환경권을 크게 넓혀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섭리 앞에 어머니 나라의 사명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인류는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은 상태에서 6천년간 살아나왔는데, 참부모가 지상에 천일국을 세우고 천일국을 안착한 자리에서 영원한 인류의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환경권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협조하지 못하고 뒤처지고 있다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은 분명하다.

긴 세월 한결같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수고해온 종교단체들, 기독교 배경을 가진 그들을 내버려둘 수 없다.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모시고 함께 지상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참부모는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이 황금기를 놓치는 불쌍한 1세권, 2세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희들이 더 노력해서 한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하늘의 섭리 가운데 동참하고 있는 의인들과 선지자의 활동 보고를 듣는 현시점인데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외쳐주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있어 하늘부모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기쁘다. 사랑한다! 



언제나 높은 수준의 문화공연을 펼쳐 보이는 신일본 청년학생들

PEACE STARTS WITH ME : 평화와 축복

PEACE STARTS WITH ME, 평화와 축복

Peace & Blessing



하늘의 축복받은 장자국으로서 책임 다하는 미국이 되라

PEACE STARTS WITH ME : 평화와 축복
천일국 9년 천력 4월 26일(양 2021.6.6) | 라스베이거스

사랑하는 전 세계 각계의 지도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을 따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결단을 해야만 할 시점에 있습니다.

승리한 인간 조상을 기다려온 하늘의 섭리

창조주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류 시조는 전쟁과 갈등으로 점철된 인류 역사를 꾸며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상치 못한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인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세계를 꿈꾸었지만 하루도 그러한 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조주께서는 창조원칙대로 행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그냥 버려둘 수 없으시어 구원섭리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될 수 있고, 승리한 인간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까지 하늘 섭리는 6천년이 나 걸렸습니다.

2천년 전 하늘은 당신의 창조이상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한 한 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책임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결국은 십자가로 돌아가시며 '다시 오마'라고 했습니다. '다시 오마'라고 한 거기서부터 기독교 역사가 출발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 '언제 오실까' 하고 오랜 시간을 기다리며 나왔지만, 기독교 신도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몰랐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한 생각으로 나가다 보니 많은 종파를 만들어 냈습니다. '다시 오마' 한 그리스도께서 이토록 많이 널려있는 종파 가운데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승리한 인간 조상과 함께 지상에서 하늘부모님으로 함께 살고 싶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함께 지상천국을 만들어 나가고 싶어하

셨습니다. 그런데 협조해야 할 승리한 인간 조상은 그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국을 하늘이 택해 세운 이유

기독교 역사가 2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늘은 기필코 당신이 세운 창조원칙과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다시 오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와서는 어린양 잔치를 해야 한다고 했으니, 기독교 환경권은 '다시 오마' 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상대가 될 수 있는 독생녀를 찾아야만 합니다. 하늘은 더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아시기에, '다시 오마' 한 재림 메시아의 환경권

을 만들기 위해서 분열된 나라들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미국입니다.

미국은 청교도들에 의해서 민주주의 나라로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늘을 모시는 교회를 세웠으며 미래를 지도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꿈은 주어진 환경이 여의치 않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교도들이 신대륙에 도착한 1620년부터) 미국 역사는 400년이 됩니다. 400년이 걸리는 동안 미국에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2차대전을 놓고 연합군의 중심 역할을 했던 미국은 승리로 전쟁을 마감했으나, 한국을 중심한 하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들이 만일 하늘 섭리를 알았고,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면 오늘날 한국은 남북으로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축복한 미국이 책임을 못한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2차대전 후에 미국의 실정은 가정파탄, 청소년 문란과 마약 문제로 심각한 사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참부모는 하늘이 미국을 세워서 세계 인류를 품고자 하시는 것을 알았기에 1971년에 미국에 건너가 미국을 부흥, 부활시켰습니다. 하늘이 떠나시려는 미국을 간절하게 붙들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미국의 청년들이 참부모에게 교육을 받고 세계 선교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선교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미국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하늘의 축복을 받은 미국으로서의 책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하늘을 배반하는 입장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하늘을 모시는 데 있어서 가정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미국 가정들은 어떠합니까? 어떻

게 청소년들이 학교나 사회에서, 더더구나 초등학교까지 총기를 난사하여 친구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는 미국의 정치가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에 총칼을 녹여 쟁기와 보습을 만들어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국인 미국 국민들은 왜 총기를 가져야만 합니까? 이유 없이 생명들이 죽어가는데 왜 이러한 환경을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미국민을 축복가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나는 ACLC를 중심하고 미국의 기독교 목회자들이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참부모가 40년 역사하는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덴버리 사건을 놓고 종교 자유를 외쳤던 유명한 제리 파웰(Jerry Falwell) 목사님과 그 아들이 있습니다. 정치계를 대표해서 법사위원장이던 오린 해치 상원의원께서는 퇴임하는 날까지 탄원서를 냈습니다. 레버런 문에 대한 미국의 처사는 옳지 않다고 말입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에게까지 탄원했습니다. 이러한 의인들이 있었기에 나는 오늘 미국을 다시 일깨워 과거 청교도 정신으로 돌아가자고 기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살고, 세계가 살려면 창조주 하나님, 우리 인류의 부모가 되고 싶으신 하늘부모님을 모셔야만 합니다. 그 길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참부모에게 중생·부활의 축복결혼을 받고 다시 거듭나 하늘부모님의 아들딸로 나설 수 있는 참가정운동이야말로 미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길을 나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동안 나와 같이 뜻을 함께한 ACLC 목사들, 그 주변의 인연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여러분 종족의 실제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미국민을 축복가정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미국의 경제, 문화의 중심인 뉴욕의 뉴요커 호텔을 새롭게 단장하여 평화궁전으로 만들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참사랑, 참가정 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받는 장소로 만들 것입니다. 세계의 수도라고 하는 워싱턴에는 미국이 공산화될 수 있는 때에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여 워싱턴 타임스를 창간했습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부터 미국의 대통령들에게 미국을 어떻게 지켜야 하며, 하늘이 축복한 미국이 민주세계의 대표국으로서 어떻게 세계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가를 교육하는 데 전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워싱턴 중심가에 워싱턴 타임스 빌딩을 세워 정부와의 관계에서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이 워싱턴을 방문하게 될 때 필히 들러서 교육받아야 할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것은 미국만을 위한 길이 아닙니다. 누가 부모인지도 모르고, 고아 같은 자리에서 방황하고 있는 인류 앞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미국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미국이 400년 탐강 기간을 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이때에 있어서, 특히 섭리의 봄 절기에 맞게 미국과 전 세계에 축복의 씨를 심는 상징적인 건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인류가 고대하고 하늘 부모님이 꿈꾸셨던 '인류 천주 대가족, 지상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환경권을 참부모가 지상에 있는 동안에 만들려고 합니다.

한국에서부터 6천년 만에 처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천일성전을 봉헌하는 날과 하늘부모님의 날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전 세계의 백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이때 400년 동안 수고하신 하늘부모님 앞에 미국이 책임 다하는 축복받은 장자국으로서의 사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통보합니다. 부디, 더 이상 기회를 놓치지 않는 슬기로운 미국의 위정자와 국민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종료합니다. 7

평화는 나로부터 시작

축복받은 우리

남편: 저는 아프리카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독일인이예요. 그리고 호주에서 생활하셨죠. 이런 다문화 환경에서 자라난 저는 축복받은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축복을 준비하는 과정은 저의 신앙생활에 집중 할 수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특히 영적인 부르심과 가정에 집중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죠. 제 삶의 중요한 기간임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축복결혼이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위분의 최고의 성과일 것입니다. 사심 없는 사랑에 끊임없이 빠지도록 만들어요. 더 나은 세상을 창조하기 위해 맺어진 서로와 결혼하겠다고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이 혁명적입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 일반적인 결혼식처럼 보이겠지만, 서로 다른 나라, 다른 인종의 각계각층의 남녀가 모입니다. 저희 가정은 두 아이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아내: 축복이 뭐가 다른가 하면 ‘평화를 위해서’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이 아름다운 이유죠. 더욱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영적인 여정

남편: 저와 같은 사상과 같은 원칙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해요. 제가 축복에 대해서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멋지다! 훌륭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우자를 어떻게 선택하는지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맞는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니까요. 단지 부부간에 하는 약속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입니다.

아내: 이 색다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 아름다움을, 그리고 전에는 몰랐던 선함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마음을 열고 순응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네가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다, 내가 주는 것을 네가 거부하지 않을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 같은 비전, 같은 목표, 그리고 같은 관습을 가진 부부가 만나 사회에 기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아내: 더 큰 목적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약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어려운 것은 그 약속을 어떻게 지키느냐입니다. 그 약속은 단지 하루 이틀 또는 몇 년 동안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약속인 거예요. 축복은 막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많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결혼에 임하여 주십사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완벽한 건 아닙니다. 축복받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큰 노력이 필요해요. 요즘 다소 건전하지 못한 방식의 사랑을 찾고 있는 청년들이 많아요. 축복은 가족과 부부가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해결해 줍니다. 또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서로를 위한 환경을 만듭니다.

아내: 아직도 많은 걸 알아가고 있어요. 부부사이에는 큰 노력과 필요합니다. 축복은 성장에 대한 헌신이며, 시작에 불과해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같이 잘 해낼 겁니다.



남편: 저는 처음부터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가 가장 어려운 법이거든요.

아내: 준비과정이 있었음에 정말 감사해요. 19세에 받은 축복이었지만, 어머니께서 저와 딱 맞는 사람을 찾아주셨습니다. 우린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서로 서약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과 축복받을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남편: 축복식은 멋지고 훌륭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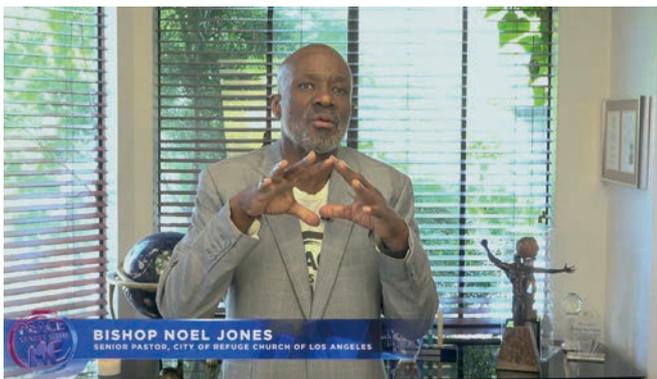
아내: 우린 32년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 그럼 여보! 32년을 함께 보냈고 앞으로 올 32년 또한 함께 할 준비가 되었나요?

아내: 그래요, 우리는 서로를 선택했어요.

더 나은 세상

아내: 남편은 가약식(약혼식) 때 정말 심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야야 실감이 났죠. 축복식은 더 이상 어떤 개념이 아닌 실상이었어요. 그 실체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남편: 축복식장에서 제 주위에 저를 서포트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축복받는 신랑신부 일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특히, 친구들과 헌신의 길을 함께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축복식은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황홀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내: 축복식 아침, 저는 흥분상태였습니다. 많은 사람과 같이 축복식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위해 이곳에 있는지에 대해 생각하는 게 정말 신났어요. 일반적으로 신부가 하는 화장이며 단장의 시간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옆에서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부부만이 아닌 함께이기에 더 가치 있었고 그런 순간을 함께 나누며 다른 부부의 사랑 이야기를 보는 것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우리 차례가 됐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 서약을 했습니다. 축복서약은 ‘네’ 라고 외치는데 것인데 “네! 다 투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서약이었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음을 깨달았어요.

남편: 축복을 통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명감도 느끼게 됩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그리고 온 인류를 위해 더 좋은 미래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축

복식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는 점과 오색인종, 세계인이 축복에 동의한다는 것이 놀라워요.

영원한 축복

아내: 축복이 영원하다는 개념을 무척 좋아합니다. 제 인생의 사랑과 영원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축복이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남편: 많은 청년들이 올바른 시대정신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분열, 갈등, 파괴적인 현실 속에서 옳은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청년들은 새로운 방법을 원하고 있어요. 그것에 분명한 답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축복은 도전해볼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것을 감히 꿈꿀 수 있습니다. 비록 내가 그런 환경에서 성장하거나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말입니다. 그 희망과 꿈이 축복을 강력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축복을 통한 전체구원의 결의를 모은 ACLCL 창립 21주년 기념식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참부모님의 귀한 사랑과 정성이 어려웠는 라스베가스의 국제평화교육센터(IPEC)에서는 ACLCL(미국성직자연합) 창립21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150여명의 성직자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1년간 참부모님을 중심하고 ACLCL 가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를 돌아켜보고, 새로운 제2차 7년노정을 출발함에 있어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책임을 다하는 ACLCL 성직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출발한다'는 목적하에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용정식 북미대륙 회장과 닥터 라우스 ACLCL 공동의장이 환영

사를 전했으며, 지난 3차의 7년노정인 21년 노정을 함께해온 성직자들에게 선택 받은 자로서 독생녀이신 참어머님과 하나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는 ACLCL가 될 것을 독려했습니다. 격려사를 전한 김기훈 WCLC(세계기독교성직자연합) 의장은 지난 21년간 수고한 성직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기독교의 책임을 강조, 참어머님과 하나 될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지난 1973년, 참부모님께서 주신 '위기의 기독교' 말씀을 참석자 모두가 함께 훈독하는 시간을 가지며 하루를 출발하였습니다. 말씀 훈독이 끝난 후 성직자들은 50여년 전에 주신 말씀이지만 현재의 우리가 처한 상황에도 해당되는

역사적인 말씀이며, 미국의 사명과 기독교의 사명을 미리 내다보시고 경고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참부모님의 놀라운 통찰력에 모두 감동의 소감을 전하였습니다. 미국을 위해서 40여년간 투입하신 참부모님의 놀라운 희생과 수고의 노정에 겸허 겸손한 마음으로 존경을 표하며, 성직자로서의 책임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닥터 젠킨스 회장은 ACLCL의 역사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참부모님의 미국 기독교 및 종교 화합을 위한 위대한 노정을 생생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김기훈 WCLC 의장은 ACLCL의 기반 위에 KCLC(한국기독교성직자연합)와 WCLC가 창립이 되었으며 그 중심에는



2000년 5월, 옛 본부교회를 순례하고 있는 ACLCL 성직자들



DMZ를 방문한 ACLCL 성직자들



섭리의 분향을 찾아 통일원리를 배운 120여명 ACLC 성직자

바로 독생녀 참어머님의 노고와 사랑이 있었음을 강조, 세계 기독교와 종교 화합에 동참하는 성직자들이 될 것을 독려했습니다.

ACLC 창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리바이 도로시 조지아 주지사는 ACLC 창립의 배경과 참부모님의 50개주 투어에 대한 발표를 통해 참부모님께서 얼마나 미국과 기독교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 간증하였습니다.

스탈링스 대주교는 지난 21년 동안 ACLC가 수많은 행사와 많은 일들을 해왔지만 21년이 지난 지금 어떠한 결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난 21년간 참부모님의 발자취를 지켜보고 그 발자취에 동참하면서 참부모님이 메시아

이며, 구세주이고, 재림주이며, 살아있는 말씀 그 자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부모님께서 미국에 오시어 형언할 수 없는 희생과 핍박을 당하시면서도 미국을 품으시고 기독교를 품으셨던 참부모님의 노정과 지난 21년간의 ACLC의 생생한 역사에 자신이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고백하며 하염없는 눈물로 참부모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닥터 라우스 ACLC 공동의장은 참어머님을 중심한 2차 7년노정을 중심하고 앞으로 ACLC가 가야 할 방향성과 책임에 대해서 공유했고, 간증에 나선 알렉산더 박사는 ‘참어머님은 독생녀이시며 본인은 참어머님의 딸’이라며 ‘참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되어 성직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라는 간증을 전해 전체를 감동케 하였습니다.

존 잭슨 신미국4지구 회장은 ACLC의 중요한 책임은 ‘축복을 통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교회 신도들을 하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해 성직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저녁에는 ACLC 21주년 기념 뱅퀀이 거행되었습니다. 용정식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제2차 천주적 가나안7년노정은 실체성신인 독생녀 참어머님과 절대적으로 하나되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하는 전체구원이라는 컨셉을 중심으로 144,000명의 성직자가 천보원에 입적할 수 있도록 총진군하자”라는 희망과 결단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마지막 날인 22일에는 참석자 중에 성직자 3쌍이 대표적으로 성주를 마시고 탕감봉 행사를 한 후 40일 성별과 3일 행사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3일간의 일정에 참석한 성직자들은 본인의 교회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도들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결의하는 결단식이 용정식 회장과 닥터 라우스 의장, 5개 지구장과 지구 ACLC 책임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지구별로 구체적 실천 과업과 계획에 대해 토론의 시간을 가진 참석자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보고 기도를 올리며 전체 일정을 마무리 하고, 사명 완수를 위한 각자의 임지로 돌아갔습니다. ㄷ



2000년 5월 1일, ACLC 창립을 기념하며 임진각에서 평화의 비둘기를 날려 보내고 있는 성직자들

역사와 전통, 현재와 미래의 축복이 한데 어우러진 창립기념의 날

하늘부모님의 나라, 천일국이 안착되어 맞이하는 새 시대! 천력 5월 4일, 효정천원에서는 제59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7주년 기념 특별집회가 천정궁과 세계본부교회 대성전을 이원중계하고 피스링크를 통해 15개 언어로 중계하므로 오색인종 세계인이 송축하는 잔치로 거행되었습니다.

참가정을 시작으로 만민이 올린 경배식에 이어, 창립 이후 모진 핍박과 반대를 이기고 참부모님 섭리 노정에 동참하여 일편단심의 일생을 살아온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선배들을 위한 효정 감사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온 정년퇴임 목회공직자들의 은혜로운 간증과 함께 효정정년퇴임식이 이어졌으며, 신한국특별대륙의 공동대륙회장들은 소임을 다한 선배 공직자 가정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아름답고 영광스런 날을 축하하는 성가를 함께 불렀습니다.

33년, 15년 장기근속 목회공직자 가정에 대한 공로패 시상 에 이어, 특별히 효정의 모범적 삶을 살아온 7개권역 39개 지구 40쌍의 목회자 가정과 40쌍의 축복가정에게 효정가정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각 지구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참여머님의 재가 속에 선정된 효정가정의 아름다운 삶은 평화예배 효정나눔의 장에서 공유될 예정인 가운데, 탄자니아 선교사로 임지를 지키다 순교한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 가정의 효정나눔이 전체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효정의 가삿말이 녹아있는 찬양을 올린 천정궁 세계본부 천승성가대의 아름다운 찬양에 이어 천지인참부모님을 모신 가운데 이어진 특별집회 및 축승회! 윤영호 세계본부장은 협회 창립 67주년이 갖는 의미와 신미국 대회 승리의 내용을 공유해 전체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전체의 예를 받으시고, 하늘의 뜻을 밝혀 주신 말씀 훈독의 시간을 함께하신 참부모님께서서는 축복가정 식구들의 공로를 치하하시며 통일가의 빛나는 미래를 축원해 주셨습니다.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그린 리틀엔젤스의 노래를 함께한 전 세계의 지도자와 축복가정 식구들은 통일가의 산 역사를 잇는 이날의 귀한 뜻과 가치를 깊이 새기며 하늘부모님성회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창조하는 주인이요, 역군이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했습니다.



진정한 희생의 삶

사사모토 마사키(1950~1981) 선교사는 탄자니아에서 순교하였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일본에서 진리를 찾던 열성적인 청년이었습니다. 호우세이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였으며, 통일원리를 접하기 전에는 물문교와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공부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사모토 선교사는 조각과 회화에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습니다. 하이킹을 즐기기도 했는데 한때는 겨울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눈구덩이를 파고 들어가 죽음의 문턱을 오갔으나, 다행히도 구조대원에게 발견되어 구사일생으로 죽음을 면했습니다. 그 직후 통일교를 접하게 되었고, 1973년 4월 10일 도쿄 나가노 교회에서 입교하였습니다. 평범한 교회 식구로 활동하였으며 꽃과 인삼을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내인 치에코와는 1975년 2월 8일 서울에서 1,800쌍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후 그는 말라위 선교사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말라위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지역 주민들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고군분투 하였고, 말라위 사람들을 존중했지만 기성 교회와 경찰은 선교사들을 박해하였습니다. 3년의 선교사 생활을 마친 뒤의 간증에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말라위 선교사로 부임하자마자 넘치는 축복으로 현실임을 실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참부모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서, 저는 어떤 비참한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말라위에서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여 사랑의 실천에 대해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생활로 유명하였습니다. 새벽부터 자정까지 기도하기 위해 가까운 산으로 가곤 하였습니다. 1975년 9월 5일, 경찰이 동료 선교사들을 경찰서로 연행했을 때에도 추적을 벗어나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도 체포되어 3일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경찰이 선교사들을 제재하여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감옥에서 석방되자마자 그는 잠비아로 가서 그곳의 선교사들과 합류하였습니다. 그림 실력을 활용해서 잠비아 사람들이 즐기는 일상생활 모습을 그리며 지역 주민들과 관계를 형성하였습니다.

1979년 12월, 케냐에서 열린 선교 컨퍼런스 당시 사사모토 선교사는 떠나왔던 탄자니아로의 전근을 요청하였고, 요청이 수락되어 1980년 7월 6일, 탄자니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탄자니아는 세 명의 선교사를 감금했다가 추방한 적이 있는 악명 높은 나라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노력으로 그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산인 킬리만자로 산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그는 탄자니아의 유일한 선교사였습니다. 펀드레이징을 하고, 전도를 하고, 비자를 갱신하며, 어려운 생활을 해나가고 있던 와중에, 아내의 탄자니아 활동 합류를 불과 며칠 앞두고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도 끝나고 말았습니다. 12월 18일, 불법 체류자를 찾고 있던 경찰과 자택에서 대치하던 중, 그는 두 발의 총을 맞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시신은 다음날 아침에 발견되었습니다.

3일 후 아내가 탄자니아에 도착하였습니다. 전하는 바에 따르면, 아내는 남편의 유해를 확인한 후 곧바로 탄자니아를 위하여 이토록 훌륭한 헌신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참부모님께서 이 소식을 들으시고, 전 세계 각국의 식구들에게 사사모토 선교사를 순교자로서 추모하고 기념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사사모토 마사키 선교사는 새로운 삶을 전하고자 그토록 헌신했던 나라에서 고이 잠들었습니다. ㄹ

본 기사는 사사모토 선교사 성화 당시의 기사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인류가 송영 드리는 협회 창립 100주년을 기대하며

제59회 참만물의 날 및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창립 67주년 기념 특별집회
천일국 9년 천력 5월 4일(양력 2021.6.13) | 천정궁, 천성왕림궁전

사랑하는 전 세계의 지도자, 축복가정 천보가정 여러분, 반가워요.

그동안 협회 창립 67주년을 맞이까지 수고한 축복가정들의 공적과 역사를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3년이 지나 100주년을 맞게 되는 그때에 지상에 독생녀 참어머님이 함께하는 그날을 여러분은 맞이하고 싶습니까?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참부모님이 지상에 있

는 동안에 하늘부모님의 꿈과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전 세계 인류가 하늘부모님의 아들딸로 함께 축하와 송영을 드리는 그날을 앞당기는 통일가의 자랑스러운 축복가정, 역사에 남는 승리한 천보가정이 많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에 협회 창립 100주년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랍니다. 



① 이날의 기념식은 천정궁과 세계본부교회 대성전을 이원중계하고 피스링크를 통해 15개 언어로 중계하므로 오색인종 세계인이 송축하는 잔치로 거행되었다.
 ② 케이크 커팅을 축하하고 있는 관중들





- ① 1부 경배기념식에서 경배를 하기 위해 도열한 참가정
- ②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우)문연아 님과 문훈숙 님
- ③ 꽃바구니를 봉정하고 있는 2세, 3세권 성화어린이
- ④ 예물을 봉정하고 있는 (좌)제라드 윌리스 HJ매그놀리아 한국재단 이사장과 김종관 효정글로벌통일재단
- ⑤ 신전라국 국화인 개나리꽃 작품을 봉정하고 있는 (좌)이상재 신한국 공동대륙회장과 송정섭 전남교구장
- ⑥ 성초를 점화하고 있는 (좌)문연아 님과 문훈숙 님
- ⑦ (좌로부터) 협회 창립 67주년이 갖는 의미와 신미국 대회 승리의 내용을 공유한 윤영호 본부장, 하늘 뜻을 밝혀주시는 말씀을 훈독한 정원주 총재비서실장, 은혜로운 보고기도로 전체의 심금을 울린 이기성 천심원장
- ⑧ 효정의 가시말이 녹아있는 찬양을 올린 천정궁 세계본부 천승성가대





①

- ① 36가정, 72가정, 124가정 선배들을 위한 효정 감사의 시간
- ② 하늘 소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온 정년퇴임 목회공직자들의 효정정년퇴임식
- ③ 33년 장기근속상을 받은 7쌍의 목회공직자 가정
- ④ 15년 장기근속상을 받은 21쌍의 목회공직자 가정
- ⑤ 효정의 모범적 삶을 살아온 7개권역 39개 지구 40쌍의 목회자 가정과 40쌍의 축복가정이 선정되어 시상이 이루어진 효정가정상
- ⑥ 승리의 역만세



②



③



④



효정축복가정상

신한국 대륙



(좌로부터) 1지구 최동안 조양순 가정, 2지구 오주희 가쿠타니 유우고 가정, 3지구 도쿠나가 히로아키 박병미 가정, 4지구 배상열 라금만 가정, 5지구 양경희 이타쿠라 미사오 가정, 신한국 특별지구 김종형 야마시타 구미꼬 가정

신일본 대륙



(좌로부터) 1지구 요코야마 마코토 리명화 가정, 2지구 오카자키 카즈야 세츠코 가정, 3지구 이와키 소즈 치요코 가정, 4지구 바바 유지 아키코 가정, 5지구 츠치야마 타다카즈 노부코 가정, 신대만 특별지구 로치엔창 차이후이춘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좌로부터) 뉴욕 조그 & 아야코 헬러 가정, 메릴랜드 데이비드 & 케일리 모피트 가정, 미시건 디터 & 로제인 제스퍼 가정, 테네시 유지 & 프리실라 아가리 가정, 워싱턴 래리 & 아케미 크리 슈넥 가정, 캐나다 스토안 & 릴리 타던 가정

신아프리카 대륙



(좌로부터) 부르키나파소 요센 홀로밤바 리보 & 아기타 나주마 우드라오고 가정, 나이지리아 조지 찰스 & 카멜라 이크팻 가정, 콩고 무칸구 파우스팅 구블루 & 마사키 애니 음폰다 가정, 잠비아 파브리스 지마돔 & 기프트 무부소 가정, 르완다 조지 음파미야비기 & 부호로 은티나비유라 가정

신유럽 대륙



(좌로부터) 독일 알버트 & 구드룬 모보 가정, 몰도바 안드레이 & 다이애나 예사누 가정, 레바논 종인 & 올라 박 가정, 영국 에슬리 & 수잔 크로스웨이트 가정, 포르투갈 호아오 & 키요코 올리베이라 가정, 네덜란드 프란스 & 엘리자베스 바텐부르크 드 종 가정

신중남미 대륙



(좌로부터) 브라질 세자르 & 셸리아 레지나 자두스키 가정, 아르헨티나 카스테론 헥터 호라시오 & 두레 갈레아노 마르가리타 가정, 볼리비아 조니 아르투로 코라니 오르테가 & 힐다 몬타노 벨라스케즈 가정, 멕시코 빅토르 카스티요 & 사유키 마츠오 가정, 도미니카 공화국 콜론 발렌주엘라 히메네스 & 아우레니스 페레이라 가정

신아시아태평양1,2 대륙



(좌로부터) 태국 분타위 & 와차린 카에람삭 가정, 카자흐스탄 사맛 지놀린 & 예카테리나 지놀리나 가정, 홍콩 마이클 웨이 & 창상란 가정, 말레이시아 유분찬 & 응휘비 가정, 뉴질랜드 제프리 & 미유키 파이어스 가정



효정목회자상

신한국 대륙



(좌로부터) 1지구 김중출 정정순 가정, 2지구 마승배 임태옥 가정, 3지구 이상헌 가시하라 레이코 가정, 4지구 문두균 박말레 가정, 5지구 김창환 후지네 마유코 가정, 신한국 특별지구 한지열 안정희 가정

신일본 대륙



(좌로부터) 1지구 노부유키 사토에 나카무라 가정, 2지구 히로유키 야요이 스즈키 가정, 3지구 신이치 사토미 토사 가정, 4지구 한용호 카마모토 카즈미 가정, 5지구 수영운 구누기 유리 가정, 신대만 특별지구 첸밍신 황치우핑 가정

신미국(북미) 대륙



(좌로부터) 뉴욕 에스테반 & 로나 갈반 가정, 조지아 레비 & 클레어 도허티 가정, 캔자스 피터 & 미에코 사나 가정, 네바다(라스베이거스) 앤드류 & 리디아 콤포턴 가정, 캘리포니아 윌터 & 수아파 프랭크 가정, 캐나다 프랑코 & 치즈루 파물라로 가정

신아프리카 대륙



(좌로부터) 코트디부아르 아오 로저 쿠야쿠 & 조크베드 드라메 가정, 베냉 파스칼 아니스 데그비 & 마리아 올리바 카스페 툴렌티노 가정, 콩고 장 치반다 & 브리짓 알베르틴 부앙가 가정, 모잠비크 팔루쿠 몰레키야 & 비아트리스 도스 산토스 가정, 수단 압델무민 아흐메드 & 유키코 후세 가정

신유럽 대륙



(좌로부터) 오스트리아 요한 & 힐레비 브룬바워 가정, 알바니아 가보르 & 만줄라 바스마티스 가정, 이란 문명호 & 이혜란 가정, 스웨덴 가쓰유키 & 잉 마리 기쿠치 가정, 이탈리아 안젤로 & 플로라 치롤리 가정, 프랑스 셀 & 히토미 후드 가정

신중남미 대륙



(좌로부터) 브라질 올데어 리마 드 알메이다 & 올란다 미구엘 드 리마 가정, 아르헨티나 사야베드라 은데버 델 벨레 & 이치모토 쿠미코 가정, 가이아나 로널드 & 호세파 맥가렐 가정, 니카라과 조지 루이즈 드 올리베이라 & 추팽글 가정, 아이티 테오필 & 후지코 풀 가정

신아시아태평양1,2 대륙



(좌로부터) 인도 크리슈나 아디카리 & 차트라 마야 솅바 가정, 키르기스탄 바키트 토크토프 & 유리 나카타니 가정, 중국 황청셴 & 왕슈펜 가정, 필리핀 제이미 & 셸리 버가라 가정, 호주 그레고리 & 레이코 스톤 가정



참부모님의 고명성 선포

프랑코 파물라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캐나다 회장

참어머님 자서전에서는 참아버님께서 일본 여성 지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캐나다에서 고명성 선포를 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고명은 임금이 세상을 떠나기 전 신하에게 마지막으로 내리는 왕명입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성화 후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선포하셨으며, 일본 여성 지도자들이 참부모를 도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있었던 고명성 선포식이 있는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당시 캐나다 식구들과 함께 직접 참석하였기 때문에, 이 행사를 기념하는 것은 물론 참부모님의 역사적 기록을 증언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당시 저의 일기, 주고받은 편지 및 보고서를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통일성 확립

참부모님께서 뉴욕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시어 1991년 6월 5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하셨습니다. 6월 8일, 온타리오 호수에서 낚시를 하실 때, 참아버님께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셨는데 이는 초창기 버전으로 군대의 무전기와 비슷

한 전화기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일본에 전화하시어 일본의 주요 원로 4명의 부인에게 며칠 후인 만물의 날을 맞이하여 뉴욕에 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참부모님께서 뉴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월 12일, 당시 캐나다 교회의 목회자였던 저와 로버트 터피는 뉴욕커 호텔에서 열린 만물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참부모님께서 2층 메자닌 그랜드 볼룸을 향해 이동하셨고, 참어머님께서는 저희 쪽을 힐끗 쳐다보시며 미소를 지어주셨습니다. 저희는 참부모님이 다시 캐나다로 와 주실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6시쯤, 토론토로 돌아가는 길에 참부모님의 비서인 피터 김이 전화로 급히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참부모님께서 저녁 8시에 차를 타고 이스트가든에서 출발하여 캐나다로 향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직감은 정확했고, 참부모님의 귀환을 준비하기 위해 부리나케 달렸습니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기 이전의 시대에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의 캐나다 식구들은 부족한 시간을 쪼개어 헌신적으로 준비하였

습니다.

6월 14일 새벽 3시 15분, 참부모님께서 온타리오주 코버그 근처의 캐나다 교회 소유인 클리어스톤 로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번 방문 일정에는 일본 교회 주요 지도자의 부인들이 참석했습니다. 일본 회장 부인인 쿠보키 테츠코 여사, 부회장 부인인 아시아평화여성연합 회장인 오야마다 노리코 여사, 일본 해피월드 회장의 부인인 후루타 코코 여사, 그리고 유명한 일본 교회 지도자인 세츠오 사쿠라이 씨와 부인인 세츠코 여사가 함께하였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신 참부모님께서 아침 7시 직전 일본 원로들을 클리어스톤 로지의 거실에 모아 조용하고 진지하게 특별한 의식을 거행하셨습니다. 우리 외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이나 녹음 기록은 없습니다. 의식은 모두 일본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부 캐나다 식구들은 닫힌 문 양쪽의 좁은 유리 패널을 통해서 지켜보다가 그날 늦게서야 일본 부인들이 건네준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이 메모는 이후 역사 기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참아버님께서



캐나다 의회와 성지 근처에서 윤기병 보좌관, 정원주 보좌관, 쿠보키 여사, 참어머님, 오야마다 여사, 사쿠라이 여사, 후루타 여사, 저자인 프랑코 파몰라로 캐나다 회장이 뒷줄에서 있다. (왼쪽부터)



참부모님께서 캐나다 온타리오 주 코버그 인근의 캐나다 교회 건물인 클리어스톤 로지에서 고명성 선포를 하셨다.

는 기도를 하시고 참어머님께 자신이 성화한 후에도 메시아로서의 임무를 계속해 나갈 것을 맹세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대표들이 증인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맹세하신 후, 참아버님께서 캐나다에서 선포식을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아담을 대표하며 참어머님께서 해와를 상징하고, 네 명의 일본 여성은 해와 국가인 일본의 대표라고 하시며, 캐나다는 원래 해와 국가인 영국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의식을 이곳에서 거행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뒤인 2017년 4월, 일본 원로 3명은 일본 통일사학과의 인터뷰를 통해 당시 선포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참부모님은 서로 마주 보고 서 계셨고 네 명의 일본 부인들은 참아버님 뒤에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쿠라이 씨는 참어머님 오른쪽 두 시 위치에 서 있었습니다. 참아버님께서 먼저 참부모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독교의 2천년 역사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리신 후, 새로운 섭리를 위하여 독생자의 신부로서 참어머님이

새로운 기반을 마련해드리겠노라 다짐하셨습니다. 참아버님은 사쿠라이 씨가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그 후 참아버님께서 일본어로 의식을 진행하셨습니다. 참어머님은 해와이며, 네 명의 일본 부인은 가인권 해와를 대표하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이 선포식이 참어머님 공생애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참어머님과 네 명의 일본 부인에게 깊은 단합을 이루도록 격려했습니다. 실제로 이후인 1991년 9월 17일, 참어머님께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말씀대회 투어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고명성 선포식과 아침 식사 직후, 참아버님께서 로버트 더피, 마이클 맥데빗, 사쿠라이, 피터 김, 마이크 템플맨과 저를 포함한 일행과 온타리오 호수에서 해가질 때까지 연어와 송어 낚시를 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저희들에게 섭리의 많은 측면에 대해서 영어로 깊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실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6월 16일과 17일, 참아버님께서 낚시를 계속하셨고, 참어머님 일행은 온타리오 호수와 토론토에 있는 천

섬(Thousand Islands)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저녁에는 다함께 모여 간증을 나누고 노래를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피날레로 직접 노래 부르셨습니다.

참어머님의 공적 임무

1991년 11월, 쿠보키 여사는 저와 아내 치즈루에게 일본어 친필로 쓴 편지에서, 뜻밖의 캐나다 방문 이후 자신과 부인 식구들이 하늘의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사실 캐나다로 이동하기 위해 지갑과 여권만 겨우 챙겼을 정도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러웠을 것입니다.

쿠보키 여사는 편지에서 네 명의 일본 부인이 참아버님의 후계자로 참어머님을 지목하신 것과 선포식 직후인 1991년 7월 1일, 네 명의 일본 원로가 한국에서 열린 특별 행사에 참석한 내용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본 원로들이 왜 한국으로 불러왔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참부모님께서 하나님 섭리의 새로운 국면을 시작할 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조용하고 신속하게 조건을 세운다고 하였습니다.



선포식 후 온타리오 호수에서 해가 질 때까지 낚시를 하신 참아버님



1991년, 캐나다 의회를 방문한 오야마다 여사는 “참어머님께서 이곳에서 연설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외쳤고, 2년 후 현실이 되었다.

행사 중 오야마다 회장은 아시아평화 여성연합을 일본에 설립하게 된 내용에 대한 간증을 하였고 이에 참아버님께서도 아시아평화여성연합에 십만 명의 회원권을 받는다는 목표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1991년 여름, 일본 여성 지도자들은 회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였고, 1991년 9월 17일, 7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치바의 NK 홀을 예약하였습니다. 행사를 위하여 몇몇 연예인들을 초대하긴 했지만, 비중 있는 연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쿠보키 여사의 편지에 따르면 오야마다 여사는 참아버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참어머님이 메인 연사가 되셔야 하겠다는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본 원로들이 참아버님께 조심스럽게 물었고, 참아버님은 즉시 좋은 생각이라고 하시며 참어머님이 일본으로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어머님도 처음에는 놀라고 망설이셨지만, 참아버님의 의지에 따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쿠보키 여사는 몇 달 전 캐나다에 있을 때부터 하늘이 여성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참어머님께서 늘 참아버님 뒤에 계셨

고 전면에서 등장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참어머님께서도 일본의 여성 청중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행사에 나서게 되었고, 다소 긴장하셨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셨습니다. 놀랄 만큼 많은 사람이 가득 찬 홀에서 참어머님께서는 일본어로 말씀을 하시고 청중들을 완전히 끌어안았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본을 부활시키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참어머님의 일본 승리를 기뻐하시며 아시아 아시아평화여성연합의 확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1991년 10월 31일에는 한국에서 창립총회가 열렸고, 이어서 11월 20일에는 1만 5천 명이 모인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후 11월 30일, 참부모님께서도 북한을 방문하셨습니다.

1992년 4월 10일에는 세계평화여성연합의 출범을 위한 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쿠보키 여사는 편지를 다음과 같이 마무리 했습니다. "진실로 저는 우리가 캐나다에서 돌아온 이후로 참어머님을 중심삼고 하늘의 섭리가 매우 빨리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국가로서 이것이 제가 완수하고 싶은 마지막 임무라

고 생각합니다."

쿠보키 여사는 1992년 4월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1992년 3월 26일부터 4월 1일까지의 참부모님 일본 방문에 대해 공유하였습니다. 참부모님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 가네마루 신 등 주요 지도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졌고, 해외 국가로서 기반을 굳건히 했다고 하였습니다. 쿠보키 여사는 일본이 참부모님을 받아들이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면, 참부모님께서 일본 대신 캐나다를 준비하셨을 것이라고 하면서 안도하였습니다. 그 후 1996년, 참부모님께서도 일본의 딸 국가로서 필리핀, 대만, 캐나다 세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참부모님의 보살핌

다시 고명성 선포식 당시의 캐나다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날인 1991년 6월 18일 화요일은 캐나다 교회에서 특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1968년, 토론토에 첫 센터가 문을 연 지 23주년이 되는 해였던 것입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참아버님께서는 아침 일찍 낚시를 하러 나가셨고, 참어머님께서는 일본 원로들과 함께 클리어스톤 로지에 남으셨습니다. 참어머님의 말씀에



일정 중 일본을 대표해 모인 부인들과 캐나다 식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신 참부모님



참어머님께서 기조연설을 하신 세계평화여성연합 시도대회(1992.5.11 ~ 6.2)가 전국 21개 도시에서 이루어져 연인원 18만 명이 참석했다.

따라 그날 저녁 식사는 로지 건물 앞 잔디밭에서 준비되었습니다. 그날은 따스한 여름 저녁이었고, 40여명의 식구들이 작은 불 주위에 동그랗게 둘러앉았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각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들의 대답이 끝나자, 참아버님께서는 각각의 부부에 대해 한 말씀씩을 해주셨는데, 그들의 상황이나 성격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개개인과 함께 한 시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각각의 장단점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때까지 거의 10년간 우리 부부의 불임 문제로 고군분투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보살핌에 대하여 간증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참아버님께서는 캐나다 교회의 총체적인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시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뉴욕의 UTS(통일신학교)에 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제가 뉴욕에 가있는 동안 아내에게 캐나다에 머물라고 하셨는데, 참어머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아이가 없는 것을 걱정하며 참아버님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습

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참어머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희망을 잃지 말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불임을 해결하기 위해 동양과 서양 의학을 조합하여 시도해 보라고 조언도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UTS로 출발하기 며칠 전에 기적적으로 아내가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하늘의 개입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잔디밭에서 유쾌한 대화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캐나다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여기 와서 매일 머물렀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여기서 한 달만 머무르면 여러분 모두를 개척자로 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 캐나다에서 통일교회 운동이 발전하고 있는 것을 보고 싶은가요, 안 보고 싶은가요? 가만히 있으면서 해오던 패턴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캐나다를 떠나시기 전, 참아버님께서는 교회 구조조정에 대하여 더 많은 지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991년 6월 19일 늦은 아침, 참부모님 일행은 직원과 일본 원로들 그리고 세 명의 캐나다

지도자들과 함께 천심 전망대에 들렀다가, 뉴욕을 향하여 8시간 이동하셨습니다. 참부모님께서서는 아름다운 경치를 보시며 저희에게 귀한 조언을 계속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부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3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돌이켜보면, 참부모님께서 예전에도 하나셨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이심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캐나다에서 이루어진 고명성 선포식에 참석하여 참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은혜를 누렸고, 그 추억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 이후 참어머님께서는 1991년부터 공적인 임무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던 이야기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캐나다에서 참어머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늘부모님이신 하나님께서 간절히 꿈꾸셨고, 참부모님께서 지칠 줄 모르고 애써 이뤄 오신 하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중단없는 전진을 이어가실 참어머님을 우리는 기도하고 응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천지인참부모님께 영원한 찬양을 올립니다!

칠십 벌의 성의

하늘의 심정을 움직이는 효정의 힘

데미안 던클리
신아시아태평양1 대륙회장

지난 4월 27일, 참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지도자들을 천정궁에 불러 하신 말씀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한국전쟁 후 1960년대 초반, 참부모님께서는 섭리역사를 위해 가지신 모든 것을 투입하셨습니다. 참어머님께서서는 당시 젊고 아름다웠으며 신혼이였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여자로서의 삶과 꿈, 욕심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참어머님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셨기 때문입니다. 참가정의 장자인 효진님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참어머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참어머님께 예쁘고 좋은 옷이 없어 늘 안타까웠다고 하였습니다. 4살 무렵이던 효진님께서서는 자신이 커서 예쁘고 좋은 것들을 사드리겠다고 참어머님께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른이 된 효진님께서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성혼기념일마다 꼭 참어머님께 반지나 목걸이를 선물하였습니다. 네 살 때 한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도 아들이 약속을 지켜온 일들을 말씀하시곤 하셨습니다.

4월 27일, 효진님 가정의 장자인 문신출 군은 UPA 생도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참어머님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



참부모님께 최고의 효를 올리고자 했던 효진님과 참어머님



효진님 가정의 장자인 문신출 군과 그의 대상 정지우양

드렸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손주들로부터 다이아몬드 반지를 받은 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 나를 기억하고 항상 내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이 아이들이 내 심정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지의 디자인을 보면 아름다운 꽃처럼 보여요. 그것은 이들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어제 이 사랑의 마음을 받고 난 후, 나는 이것을 두고 다닐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통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참어머님께서 그런 감정을 표현하시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손주들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내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소중한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반성해야 할까요? 참어머님께서 정말로 우리 지도자들에게 반성해야 한다 하시며 손주들이 선물한 반지를 사랑하고 계셨지만, 다른 한편으

로는 참어머님의 깊은 속내를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심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손주들과 UPA 생도들의 귀한 선물뿐만 아니라 효진님의 심정까지 생각나셨던 것입니다. 참어머님께서 어떤 부분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짐작할 수 있으신가요? 참어머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서 지도자들을 예고 없이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반성해야 한다”였습니다. 우리는 참어머님의 심중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달은 사명

참어머님께서 저희 가정을 아시아에서 봉사하도록 임명하셨을 때, 저는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귀와 눈을 뜨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늘부모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부모님께서 제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걸까요?’ 21일 후에 저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당시 저는 세계본부로부터 신아시아 태평양 대륙의 참어머님 자서전 보급 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확인해보니 언어의 장벽 때문에 보급이 거의 안 된 상태였습니다. 신아시아태평양1 대륙에는 적어도 18개의 언어가 있었지만, 자서전을 번역하고자 하는 계획은 아직 없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우리의 상황을 비교해보니 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서전 번역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지도자들과의 첫 회의 결과, 많은 비용과 전문적인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었습니다. 우리 대륙은 다른 지역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개척단계에 있었고 그 의존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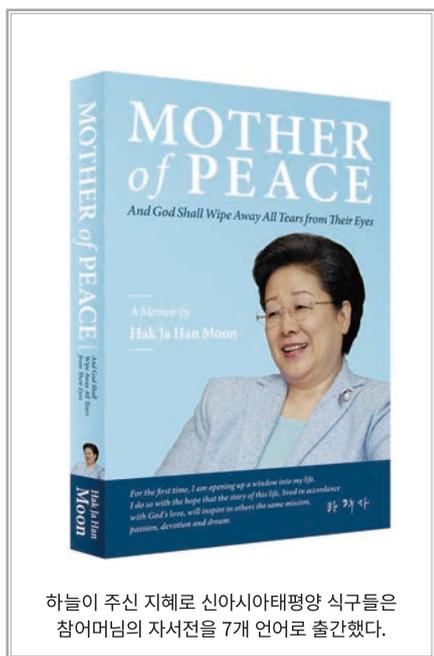
것 같았습니다.

저의 집은 미국 뉴저지 주에 있었고 목회자로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 식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생각하면 눈물이 흘렸습니다. 네팔에서 온 수백 명의 신도들이 센터를 잃어 집으로 돌아갔고, 그중 많은 신도들이 인터넷이 없어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도 벌써 1년이 된 지금 저는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는지 조차 궁금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순위의 확립

어떻게 해야 할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시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식구 한명, 한명을 참어머님의 사랑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는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은 저에게 두 가지를 실행하도록 지도해 주셨습니다. 참어머님의 삶에 대해 더 깊이 공감하고, 그 심중에 연결 될 수 있도록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읽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다국어의 자원봉사 번역 팀을 꾸려 한주에 한 페이지 씩을 번역해 매주 지역마다 보내는 공문과 함께 자서전 페이지를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므로 책 전체를 번역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저희 대륙은 지난 2020년 11월 초부터 이러한 일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12월 무렵, 저는 참아버님 탄신일까지 자서전을 5개 국어로 번역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지원할 예산이 없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원봉사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 엄청난 양의 업무를 소화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목표했던 5개 국어를 넘어 7개 국어 번역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로 가서 참어머님께 이 선물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주신 지혜로 신아시아태평양 식구들은 참어머님의 자서전을 7개 언어로 출간했다.



네팔 카트만두로 온 식구들은 센터를 유지 할 수 없어 고향 마을에 돌아가 고립될 수밖에 없었다. 저자는 신아시아태평양 식구들의 현실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효정사랑헌금

하늘이 두 번째로 지도해주신 것은 돈에 대한 우리의 자세였습니다. 아내인 유미코와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저는 예상치 못한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륙 식구 모두에게 헌금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히려 지원에 의존하고 있던 식구들에게 말입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받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따르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먼저 대륙의 각 국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하고 각 지도자들과 협력하였습니다. 또한 참여머님의 자서전을 훈독하고 심정의 기반을 마련하는 조건을 세웠습니다.

결국 12월이 되어 저는 하늘이 주신 사명을 더욱 솔직하게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신아시아태평양1 대륙

지도자들이 완전히 단결하였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1월 1일부터 21일 까지 신통일한국을 위한 '효정사랑헌금'으로 상당한 액수를 모금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참여머님의 심중을 체휼코자 하는 우리들의 효정이었습니다. 돈은 우리 심정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어린아이들의 효정의 마음은 값을 매길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식구들이 해낸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이 효정의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참여머님께 보고

지도자들의 단결과 식구들의 소중한 희생 덕분에 우리는 이 선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4월 26일, 참여머님께서는 지도자들을 소집하셨습니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먼저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되새겨 주셨습니

다. 많은 지도자들이 여전히 참여머님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여머님께서서는 우리가 '새로운 술을 위한 새 부대'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1년 2개월 동안의 대륙 활동 보고를 긴 시간에 걸쳐 보고 드렸습니다. 마침 시간이 거의 다 되었을 무렵 참여머님께서서는 윤영호 본부장을 불러서 저를 향해 손짓 하셨고, 그리하여 저를 포함하여 두 명의 보고를 추가로 듣게 하셨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저는 참여머님이 위대하신 이유를 "독생녀를 찾아 성혼하시고 사랑하신 일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인류가 어린아이와 같이 힘들었던 이유는 참여머님의 사랑을 갈구하여 왔기 때문이며, 이것이 우리를 하나로 뭉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참여머님의 자서전을 짧은 시간 안에 7개 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봉사한 우리의 지도자들과 식구들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음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먼저 참여머님과의 관계성을 더욱 깊이 하지 않고서 다른 어떤 섭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머님의 자서전을 읽지 않고 어떻게 섭리 역사를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참여머님께서 피곤하실까 봐 시간을 끄는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효정사랑헌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1월에 편지로 보고드렸고 헌금은 끝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다른 욕심 없이 오로지 참여머님께 기쁨 드리고 하늘을 감동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단지 자서전의 번역에 대해서만 보고했습니다. 그것은 신선한 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참여머님의 말씀

늦은 시간이었지만 참여머님께서 회의의를 그대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 회의를 마치기 위해 다시 연단으로 올라오자 참여머님께서 "데미안에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아에서 여러 보고가 올라옵니다. 데미안이 올리는 보고는 모두 보았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섭리를 위해 아시아를 재정적으로 많이 도와왔습니다. 하지만 데미안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투입했고, 일본을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일본도 소임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나에게 활동 자금을 요청하여 도와주었습니다. 데미안에게는 내가 특별한 선물을 주겠습니다. 아시아 식구들을 둘러보아서 잘 알겠지만, 많은 식구들이 금전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아시아 식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식구들이 그들 자신을 완전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구들이 많습니다. 식구들의 눈물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어떤 식구는 17달러를 헌금하고, 어떤 식구는 7달러를 헌금하고,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모은 것입니다. 데미안은 참부모에게 헌금한 첫 아시아 대륙 회장입니다. 이것은 전에 없던 일입니다. 나는 그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식구들의 헌신을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통일에 관해서는 아시아 대륙 전체가 신통일한국의 안착을 이끌어야 합니다. 환태평양문명권 시대입니다. 환태평양 문명권은 세계를 포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시아가 중심이 되어 천일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데미안에게 참부모의 옷을, 겨울부터 봄까지 입었던 칠십 벌의 옷을 줄 것입니다. 참부모가 입었던 옷을 섭리를 위해 투입한 식구들과 필요한 사람들에



저자인 데미안 던클리 신아시아태평양1 대륙회장은 발령 전 미국 협회장으로 일하며 'Peace Starts with Me' 대회를 치러냈다.

게 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국가 복귀를 위해 일하라고 말해주세요. 목표는 국가복귀입니다. 국가복귀의 잠재력이 있는 나라라면 누구나 정성과 기도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신일본 4지구에서는 참부모의 은혜로 죽음을 앞둔 이가 살아났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신통일한국 안착에 따라 아시아도 부활할 것입니다. 참부모가 칠십 벌의 옷을 줄 테니 데미안은 식구들에게 전달하세요."

우주적인 격려

아시아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효정을 드리고 참여머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대륙의 70명의 식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륙 모두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누가 이것을 받든, 우리 모두 이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우

리 식구들이 하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전혀 없는 축복입니다! 세계 모든 식구들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참여머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 식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싶으셨지만, 그에 맞는 조건을 기다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배가 고프면 엄마의 유방은 자동으로 모유로 채워집니다. 참여머님 역시 그러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아기의 입이 젖을 찾지 못하면 젖이 나오지 않고, 엄마는 아이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여 도리어 고통만 느낄 것입니다.

참여머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바로 잡아 주십니다. 신통일한국 안착을 위하여 아시아가 중심적 역할을 하도록 지도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국가복귀를 이룰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자 이 소중한 선물을 주셨고, 70명만이 아닌 우리 모두를 격려하시고자 큰 사랑이 담긴 선물을 주셨습니다. 

